

지상 법석

“효도 공덕 태산보다 높아”

다시 푸는 경서

초발심 자경문 (8)

人有古今 法無遷變 人有愚智 道無成衰
(인유고금이언정 법무하이이하며 인유우지나 도무성쇠나니)
雖在佛時 不順佛教則何益
(수재불시나 불순불교즉하이이며)
縱值末世 奉行佛教則何傷
(종치말세나 불행불교즉하이리오)
故世尊云 我如良醫 知病藥
(고로 세존이 윤하사되 아어양이라 지병설약 하니)
服藥不服 非醫咎也 又如善導 導人善道
(복여불복은 비의구야며 무어선도하여 도인 선도하니)
隨而不行 非導過也 自利利人 法皆具足
(본이불행은 비도과야라 자리아인이 법개구 족하니)

연하고 맹렬한 뜻을 일으키며 궁극의 이치를 깨우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세속 인연을 맑고히 여의고 (그림자같은 경계에 깰달리는) 뒤집힌 생각을 몰락 놓으며 참으로 생사의 큰 일(일생 일대사 깨우침)을 위해 조사들의 가르침(공안)을 따라 마땅히 잘 참구하여 대오 견성을 철칙으로 삼아 부디 제 자신을 엄수하여 겨서 풀려서는 일이 없도록 할자이다.

惟斯末運 去聖時遙 威風法弱
(유사말운에 거성시요하여 마강법약하고)
人多邪修 成人者少 敗人者多
(인다사치하여 성인자소요 패인자다며)
智悲者寡 愚痴者衆 自不修造 亦惱他人
(지혜자과우지자중하여 자불수도하고 역 뇌타인하니)
凡有障道之緣 言之不盡 恐汝錯路故
(범유장도지연은 언자부진이라 공여화로고로)
我以管見 撰成十門 令汝警策
(아이관견으로 찬성십문하여 영여경책하니)
汝須堅持 無一可違 至禪至禪
(여수신지하여 무일기위하길 지도지도하노라)

생각건대 이런 말법시대에 부처님 가신지 마득하여 마군은 감성하고 정법은 약해져 사탐마다 싹되고 호사스럽나니 바르게 이끄는 이 적고 남을 가르치는 이 많으며 지혜로운이 적고 어리석은 이 무리를 이루니 제 스스로 도를 닦지 않으며 또한 다른 이들에게 괴롭히나니 무릇 도에 장애되는 인연은 말로 다 할 수 없느니라. 그대도 빛나갈까 두려운 까닭에 내 좁은 소견으로써 열가지 문을 가려 지어서 그대로

사람엔 옛사람과 지금 사람이 있을지언정 법에는 멀고 가까움이 없으며 사람엔 어리석고 슬기로움이 있을지언정 도에는 성하고 쇠함이 없나니 비록 부처님 재세시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무슨 이익이 있었으며 비록 말법시대를 만났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행한다면 어찌 해로움이 있으리오고로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좋은 의사와 같아서 병을 알아 약을 주노니 먹고 안 먹고는 의사의 허물이 아니며 (나는) 또한 좋은 길잡이와 같아서 길을 잘 인도하되 듣고도 가지 않는 것은 길잡이의 허물이 아닌 것이라, 제게도 이롭고 남에게도 이로운 것이 법에 다 갖추어져 있나니
若我久住 更無所念 自今而後 我講佛子

어리석은 마음에 배우지 아니하면 교만한 마음만 들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닦지 아니하면 아상·인상만 늘게 되네. 닦은 것도 없으면서 뽐내기만 하는 모습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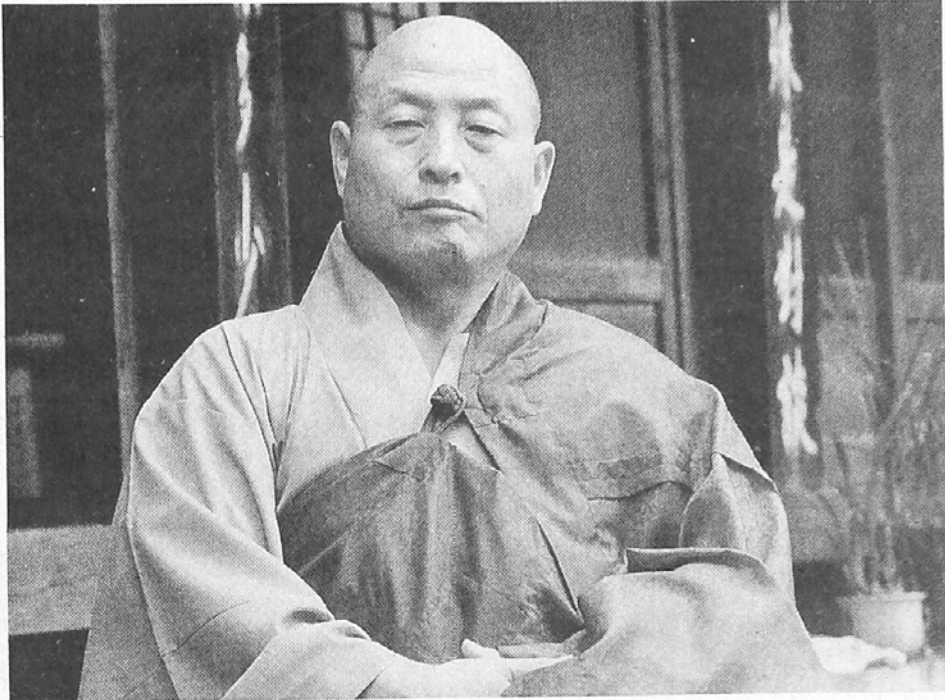
(약이구주라도 경무소익이라 자금이후로 아제불자가)
展轉行之則則來法身 常生而不滅也
(전전행지즉여래법신은 상주이불멸아라시니)
若不知此理則自根自不修道 何患乎末世也
(약치여시리즉단한자불수도언정 하환호말세야오)
伏望 汝願與決烈之志 開特達之懷
(복망하노니 여순흥결렬지지하며 개특달지회하고)
盡除諸障 除去障礙 眞實爲生死大事
(진사제연하고 제거전도하며 진실위생사대사하여)
於禪師 公案上 宜善參究
(어조사 공안상에 의선참구하여)
以大悟 爲則 切莫自輕而退屈
(이대오로 위척하고 절막자경이퇴굴이이다)

하여금 경책을 삼게 하노니 그대는 모름지기 말고 간직하여 한가지도 어긋남이 없기를 간절히 빌고 비노라.

頌曰, 愚心不學增憍慢 痴意無修長我人
(송왈, 우심불학증교만이오 치의무수장아인 이로다)
空腹高心如虓虎 無知放逸以顯頭
(공복고심여야호요 무지방일사전염이로다)
邪言囁語肯受聽 聖教寶章故不聞
(사언머공수청하고 성교현장고불문이로다)
善道無因難放度 長淪惡趣苦纏身
(선도무인수여도리오 장淪악취고전신이니라)

계승으로 말하리라, 어리석은 마음에 배우지 아니하면 교만한 마음만 들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닦지 아니하면 아상·인상(내로다, 너로다 하는 상)만 늘게 되네. 닦은 것도 없으면서 뽐내기만 하는 모습은 마치 주린 벌과 같고 아는 것도 없으면서 방탕·안일하면 마치 거꾸로 매달린 원숭이 꼴이로다. 싹된 소리 마구니 말은 즐겨 귀담아 들어도 성현의 가르침엔 귀 기울이지 않는도다. 바른 길에 인연 없으니 누가 그대를 제도하리오. 삼악도에 잡혀 오래도록 고통에 얽매인 몸 뉘랴네.

龍眼



철웅 스님 <파계사 심전암 주석>

인간의 삶이란 변화의 연속선상에서 곡예사와 같이 연극을 하며 사는 것이라 봅니다. 그러한 연극 속에서 만나면 반드시 헤어져야 하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또한 떠나 없이 때가 되면 가야만 합니다.

강건너 길메봉에 놓고 낮은 저 무덤아, 영웅호걸 몇몇이며 절세기인 그 누구냐. 영웅호걸 부귀문장 모두가 쓸데 없네. 황천행을 면할삼가. 모였던 사람 제각기 돌아가고 나니 적막한 빈신에 외로운 무덤 뿐이로다. 나무이미 타물

이렇게 우리는 무상한 세월 속에 살고 있습니다. 태어났는가 하면 어느덧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었는가 하였더니 얼굴에는 벌써 주름살이 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무상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상하니까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쓰다가 갈 곳으로 가면 되는 것인가. 참다운 사람

이러면 여기서 인생에 대해 심사숙고 해 보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변화무쌍하고 그래서 공허함과 더불어 열세적 무상함에 사로잡히게 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무상하므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아갑니다. 무상하므로 희망이 있고 예술과 철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자신들의 운명을 개척할 수 없습니다.

향종이와 비린 새끼 줄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을 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또한 일체의 부처님과 보살님들께서 간곡하게 무상법을 설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께 부처님의 법문을 전해 드리면서 저의 사견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아난에게 길가에 흩어져 있는 종이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아, 그 종이를 주워 범새를 많이 보이라. 아난이 대답했습니다. 향내가 나는 것으로 보이 향을 쫓던 것 같습니다. 그러하나, 사람도 그와 같나리. 또한 길을 가시다가 길 위에 있는 새끼줄을 보고는 주워 범새를 많이 보라 했습니다.”

범새를 많이 본 아난이 대답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비린내가 납니다. 너 무 비린내가 나서 범새를 찾기가 역경입니다. 이미도 범새로 보아 생선을 쫓았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나, 그럼 버리거라. 종이나 새끼줄은 본래 범새가 없는 것이니 무엇을 가까이 했는가에 따라 범새가 나기도 안나기도 한다. 그와같이 사람도 그러하니라. 이처럼 너희들은 안개 속을 지나가는 사람과 같나니, 안개가 비록 비는 아닐지라도 두어 시간 그 속을 걸어가면 옷이 축축하게 젖어 버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하라!”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자신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듣고, 설법을 듣기 좋아하고, 늘 기도하며 훌륭한 스승을 찾아서 가르침을 받으며, 잘못을 고치고 작은 마음을 넓히려 하는 바로 이것이 참담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드는 것입니다. 때마다 향이나 촛불을 밝히고 ‘복주시오, 복주시오’ 한다고 해서 복을 주겠습니까. 복은 비비는 손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복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과 복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부귀

복될 수 있는 마음과 행동은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대보부모은중경>에 입각하여 삶의 진실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중요한 곳을, 봉독할터이니 합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모의 열가지 은혜를 입지 아니한 자 없건마는 처지식은 귀한줄 알면서도 부모가 병들어 외로운 방에 누워 있으면 귀찮게 생각하는 불효막심한 자식도 있나니라. 자식이 밖에서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부모는 애간장을 태우면서 걱정근심도 잊건마는 자식은 부모가 열번 백번을 잘하다가 한가지라도 성실하게 하면 두고 두고 감정을 주고 이해할 줄 모르는구나.

부모가 병이 들어 외로이 방에 누워 있으면 자식들에게 폐가 될까 걱정하건만 저렇게 실려만 팔리 죽는 것이 낫으면 하는 자식도 있나니라. 만일 이와같이 부모에게 불효한 자는 아무리 공을 들여도 공덕을 받을 수 없으며, 이 다음에는 자기 자식에게 불효를 받게 되느니라. 나무이미타물

부처님께서 이와같은 설법을 하시자 모든 제자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가르침에 감격하였습니다. 어디 부처님의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누구를 막론하고 해당되는 말씀이지요. 심지관경에선 ‘이 세상에 서 무엇이 가장 큰 부자인가. 양친이 살아계심이 가장 큰 부귀니라.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공된한 가난인가. 부모님께서 돌아가심이 더없는 가난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란 없다고도 팔출려 노력하면 생길 수 있고, 벼슬이란 떨어졌다가도 다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떠나버린 부모님은 두번 다시 얼굴을 보기가 어

Advertisement for Hanmaeum Sunwon Masanzivon. Title: 이 법은 은회 (This Law is Silver). Location: 장소: 한마음선원 마산지원. Date: 1994년 12월 11일 오전 10시 30분. Content: 저울이 없으니 달 것도 없어라, 폭포수 팡팡 흘러 깊숙이 스며 흘러드는구나. 법회안내: 정기법회: 매월 첫째 토요일 오후 3시, 금요일 법회: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음력 초하루 보름정진법회: 오전 10시 30분, 거사법회: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청년회 법회: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어린이 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학생회 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Contact: 한마음선원 마산지원 주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주소/경남 마산시 합포구 산호2동 405-107. 전화/0551-42-6638~9. 팩스/0551-21-5454.